

## News

### '점진적' 파기하고 '적절한' 택한 한은…금리 정상화로 직진

연합인포맥스

한국은행, 기준금리를 0.75% 인상하며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핵심 서술 수정… 지난 8월 '점진적'에서 '적절히' 완화 정도 조정하겠다고 언급  
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연속된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신호… 임지원, 서영경 두 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 제시

### 토스뱅크, 나흘째 신규가입 중단…대기자만 121만명

조선비즈

토스뱅크, 9일부터 현재까지 사전 신청자의 신규 가입 중단 중… '무조건 연 2%' 예금통장 사전 신청자 166만 명 중 12만 명은 사전신청했음에도 다시 문 열리기를 대기해야…  
대출 중단 사태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… 이미 금융당국이 정한 토스뱅크의 올해 대출 총량의 60% 도달

### 5대 은행 외화예금 100조 육박…수출 회복에 '미소'

데일리안

을 상반기 말 KB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NH농협 등 5개 은행의 외화예수금 잔액 98조 2,0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.7% 증가  
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34조 1,806억원으로 최대 기록…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 겪던 은행권에게 외화예금 확대는 긍정적으로 해석

### 카뱅, 카카오에 낸 브랜드사용료 5년간 10배로

파이낸셜뉴스

카카오뱅크, 모기업 카카오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율 0.3%로, 4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  
브랜드 사용료는 대표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먹는 요인… 은행권 관계자 "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, 신생 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수료율 적용했다는 점은 실적 영향 가능"

### 생명보험사, 디지털 전환 통해 소비자 일상 '한걸음 더'

프라임경제

생명보험협회,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… 특히 인슈어테크가 주목 중  
일부 생보사의 경우, 스타트업 투자 지원 및 사무 공간 제공 등의 육성 프로그램 진행 중… 디지털화 대표 유형으로, AI 언더라이팅 자동화, 모바일 앱, 보험 가입 관련 플랫폼 운영 등

### 실손보험 중복 가입 막겠다더니… '개인실손 중지제도' 유명무실

조선비즈

국내 전체 실손 가입자 약 3,500만 명 추산… 직장을 통한 국내 단체실손 보험 가입자는 450만 여명… 단체실손은 개인실손과 보험료를 중복으로 부담해도 추가 혜택 불가  
124만 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15,214명으로 1.2%… 보험연구원 "보험사에 구 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속 보장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"

### 금융투자업계도 '위드코로나' 대비 분주

e대한경제

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본격화에 앞서, 금융투자업계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… 비대면 강화, 비상대책 등 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  
또한 업무 마비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도 강화할 것… 경기재개주와 컨택트 종목에 대한 리서치 종목 강화… 해외 대체투자 분야도 보강

### 증권사, 파생상품 수익 4조 '뚝 ↓'…미래에셋은 '적자 수령'

아시아투데이

을 상반기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의 파생상품 이익 합계 1조 2,093억원… 전년 동기 대비 77.3% 줄어든 규모  
미래에셋증권,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서 2,909억 7,300만원 거래손실 기록… 코로나19로 국제금융시장 2~3월 크게 악화되며 파생상품 손실이 많이 난 것으로 관계자 언급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체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